

교차와

소통의 미학,

#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 진교남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2부문 부사장

## 이정승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2부문 이사

## 개요

|        |                                              |
|--------|----------------------------------------------|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
| 용도     | 문화시설                                         |
| 대지면적   | 6,400.00m <sup>2</sup>                       |
| 건축면적   | 3,348.68m <sup>2</sup>                       |
| 연면적    | 9,661.94m <sup>2</sup>                       |
|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
| 높이     | 11m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설계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br>(진교남, 이정승, 이태상, 정주원, 최정혜) |
| 시공·건축주 | 현대산업개발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수원화성행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경

수원화성의  
성벽을 닮은 매스는  
미술 고유의 영역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고,  
옛 흔적을 따라 흐르는 길은  
도시를 향해 직절하게 연결되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열려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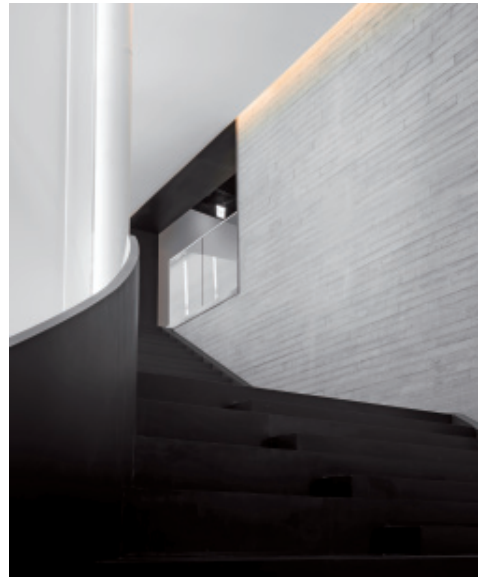




전시관 내부와 방문객들



© 권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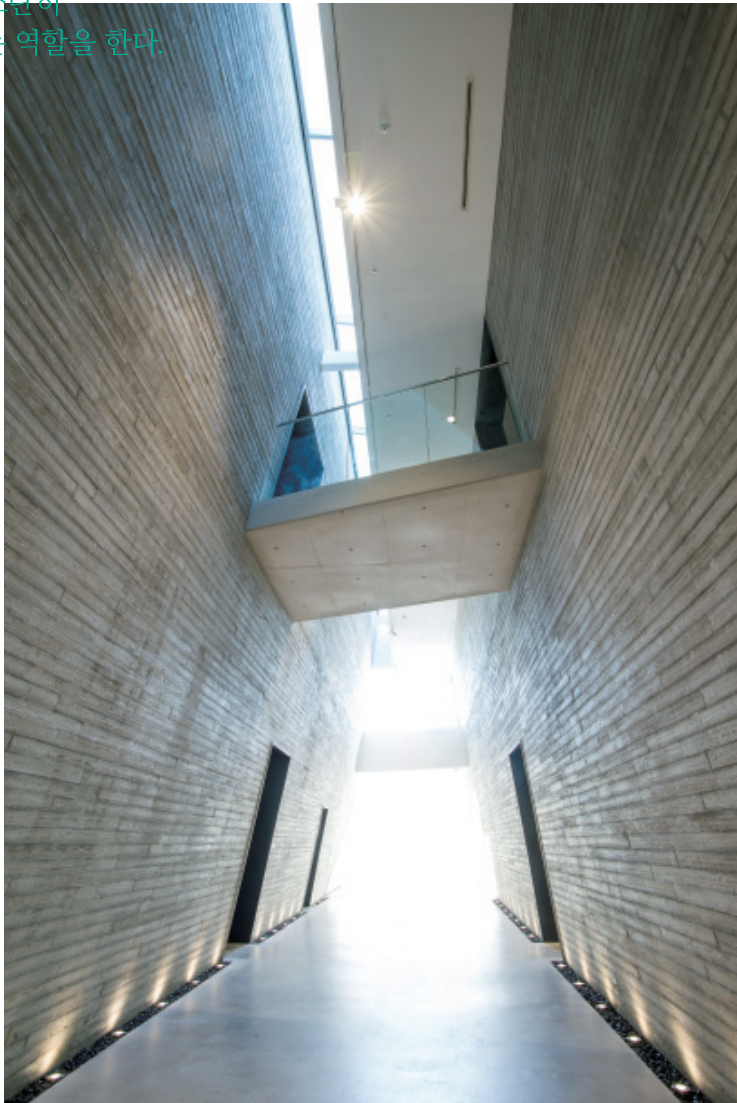
© 권수영



© 권수영

상  
중  
하  
메인 홀  
메인 홀 계단  
전시관 내부

길 주변을 따라  
 풍부하게 유입되는 자연광은  
 별도의 조명 없이도  
 관람객들의 보행을 돕고  
 외부환경을 고스란히  
 실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수영

복도 및 브리지

## 도시와 역사적 장소성

역사적인 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특별하고도 유구한 시간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인 장소이기를 기대한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와 대비를 이루면서 고유한 공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공간적 형상을 경관적 요소와 역사적이고 상징적 의미들이 상호 연계되어 인지되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장소로써 인식한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역사적 도시가 지닌 장소적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용은 개인이 도시의 시간적 인적층과 연속성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를 총체적으로 사유함에 있어 위에서 말하는 도시-공간적 유형과 장소적 특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구성과 배열이 중요한 요소이다. 즉 도시의 기능, 상징적 건축물, 장소, 그리고 내·외부 공간들과 맞물리는 길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분위기와 밀도가 장소적 특징과 공간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근본적 요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시 속의 공간적 형상과 구조물들을 물체로 인식하거나 물성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 즉 단순한 3차원적 요소가 ‘존재하는 상태’로 바뀔 때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본질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장소와 공간의 분위기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며, 건축이라 함은 도시-공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건축이 특정 사회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그 존재의 의미(장소성)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감할 수 있는 공통 가치를 그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공통 가치라 함은 사상이나 종교 같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상징 및 이미지나 특정 형상 혹은 물성과 소리·공기처럼 감각의 인지를 통한 다각적인 체험이나 인식의 교감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건축은 그 사회와 문화의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으며, ‘건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 재료와 구축 방법, 형식, 의미 그리고 오감적 인지를 통해 적층되는 여러 감각과 특별한 인상의 총체적 아우라(Aura)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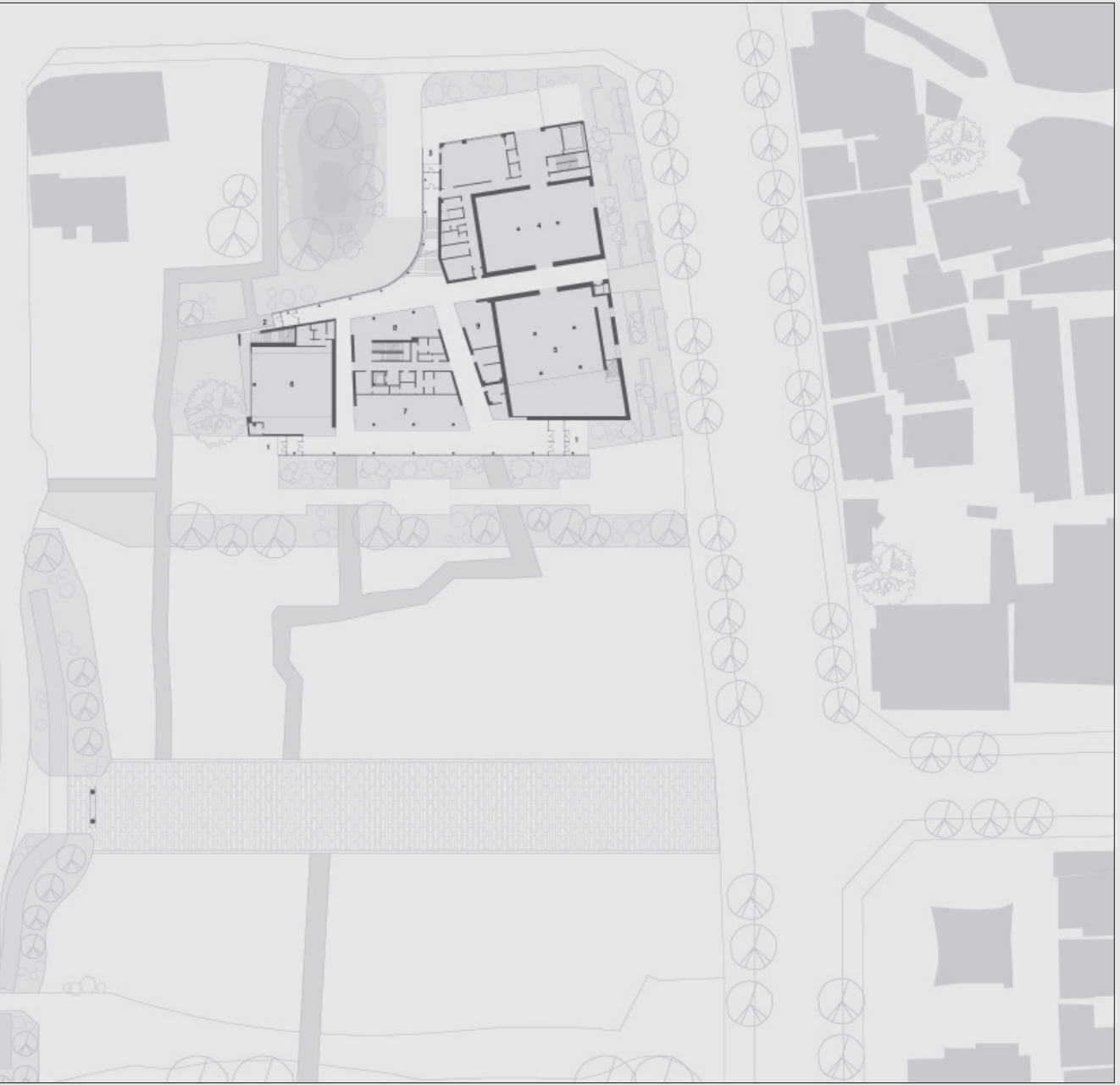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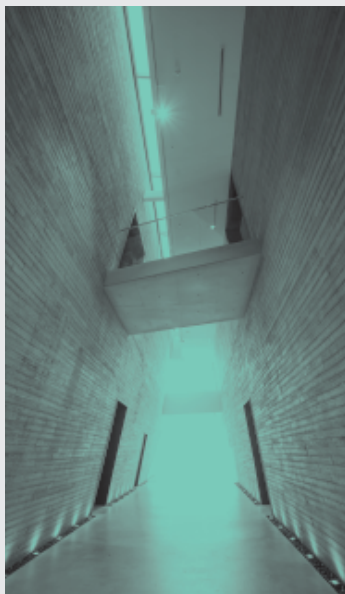


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수원화성행궁  
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주변 배치도





© 세수영



© 조영민

상 복도 및 브리지  
하 통로를 따라 이어진 유리 외벽

## 이정승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2부문  
이사

### 미술관, 시민의 공간으로 열린다

풍피두센터와 같은 미술관들은 세계적 컬렉션을 앞세워 도시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적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계적 미술관으로서의 명성 이전에 한 도시의 일상이 될 수 있음을 건축적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 가능성이 풍피두센터가 전 세계 미술관들의 주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와 광장을 향해 열린 이 유명한 미술관에는 레스토랑, 카페, 뮤지엄 샵, 극장, 교육·전시시설 등 다양한 도시적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과거의 정형화된 미술관의 이미지가 아니다. 건축의 형태는 의미를 최소화한 반면 콘텐츠만이 미술관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전시를 방해하는 모든 배관들은 외부로 노출하였고, 어떤 종류의 전시도 가능할 것 같은, 마치 컨벤션센터 같은 ‘Universal Space\*’의 성격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현대 미술의 중심을 뉴욕 맨해튼에서 유럽으로 가져오는 데 일조하였다.

국내의 미술관들도 미술관 건축의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 더 높게, 더 크게 짓는 것이 추세이다. 풍피두센터가 보여준 효율성 때문인지 전시를 위한 큰 방이 중심이 된 미술관 평면 계획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풍피두가 제공하는 강력한 콘텐츠나 차별화된 기획력 없이 공간만을 모방한 결과,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년 세계적 규모의 기획전을 준비할 수 없는 지역의 미술관에 이러한 평면 구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 실정에 맞는 미술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예술의 가치를 담은 Treasure House

미술관의 원형은 과거 왕족과 귀족들의 보물창고였다. 이 때문에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술관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고 평생에 한번 가보기도 힘든 곳이었다. 지금처럼 책이나 인터넷으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없는 시절이었기에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다. 해묵은 보물창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무한정(無限定) 공간으로, 미국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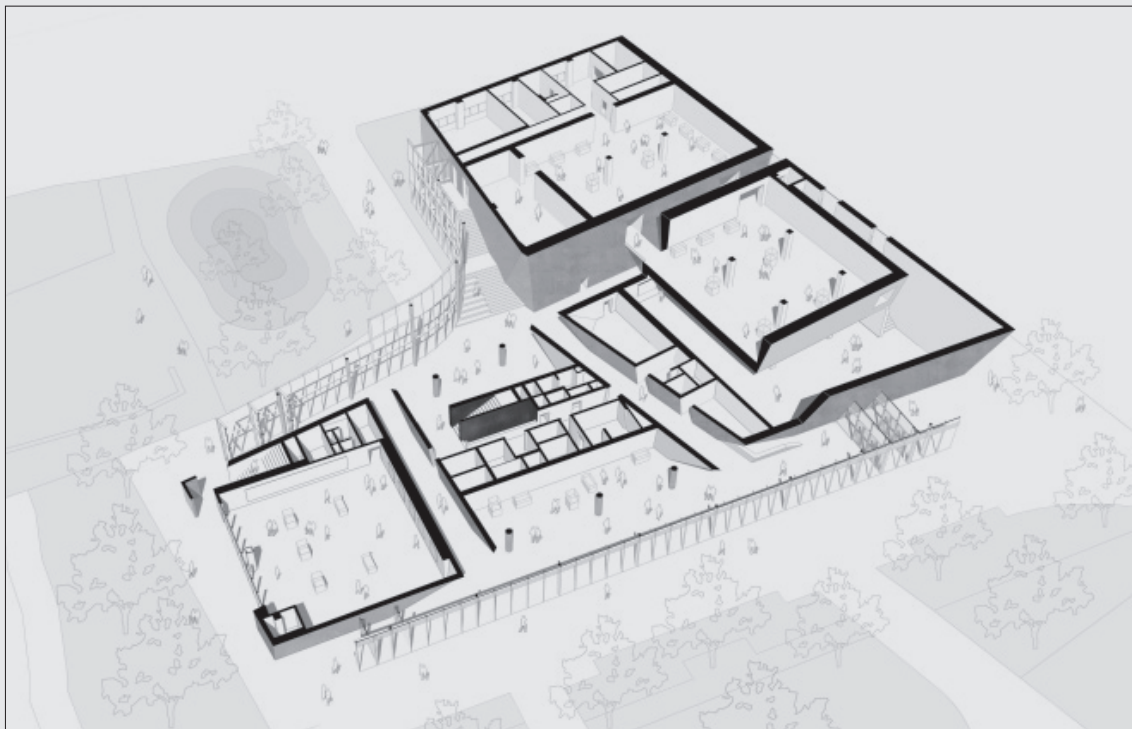
미술 작품이 갖는 판타지 혹은 아우라는 현시대에도 유효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의 대상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혁신을 이루었고, 그 대상은 신에서 인간으로, 또 인간에서 사물에까지 이르렀다.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상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가치는 일상적이지 않다. 마치 보물에 비견될 만한 것이다.

미술관은 이런 보물들이 보관된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의 의미이며, 언제든 자유롭게 들를 수 있는 생활 속 공간이라기보다 방문이 기다려지는 다소 설레고 특별한 장소였으면 하였다. 미술관은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만의 아우라가 존재해야 하고, 그 속의 보물들을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드러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현실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세계와 건축적 분위기를 수월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담고자 하였다.

### ‘보존’ 과 ‘개방’ 의 양립

우리의 계획에 있어 개방과 공공성은 도시와 만나는 물리적 구조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보존은 미술관의 가치와 분위기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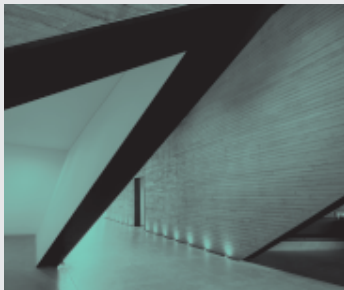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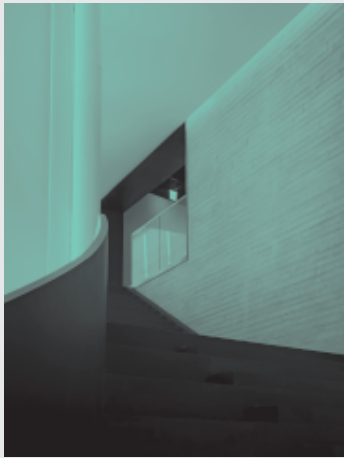
© (주)건원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평면 계획



©서수영



상 메인홀  
중 메인홀 계단  
하 복도

보완적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적들로부터 행궁을 지키는 견고한 성이던 수원화성은 보존과 보호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그 당시 혁신적인 도시 계획에 의한 9개의 크고 작은 문과 길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는 상업도시이자 공공장소(Civic Place)로서의 성격을 모두 담고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수원화성이 가진 보존과 개방이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빼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계획의 시작이었다. 성벽을 닮은 매스는 미술 고유의 영역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고, 옛 흔적을 따라 흐르는 길은 도시를 향해 적절하게 연결되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열려 있도록 하였다.

### 수원화성행궁의 맥락을 담다

미술관이 위치한 대지는 수원화성이 지켜야 할 보물인 수원화성행궁과 행궁광장에 인접한 곳이다. 미술관이 자리하기 전 그 땅의 기억을 찾고자 과거의 지적선과 옛길의 흔적을 고려하는 한편, 행궁의 주요 구성 요소인 마당과 회랑이라는 공간 개념을 도치시켜 적용함으로써 이 도시에 적합한 스케일과 맥락(context)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가변적이고 비어 있는(Void) 마당 공간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갤러리로, 고정된(Solid) 회랑 공간은 골목길의 형태로 치환되어 미술관이 된 것이다.

### 분절을 통한 개방

행궁의 공간이 여러 개의 마당에 의해 분절되었듯이 미술관도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도시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분절은 행궁과 행궁광장에서 바라볼 때 미술관의 규모를 작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립미술관의 특성상 전시와 상관없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할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골목길과 홀 그리고 4개 중 2개의 매스는 상시 개방되어 공공시설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4개의 매스에는 전면의 행궁광장과 후면의 공원으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 회랑이 설치되었다. 도시에 둘러싸인 미술관 임을 고려해 다양한 정면성을 구현하였고, 출입구를 분산 배치하여 여러 각도에서의 도시적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길과 회랑은 상시 개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안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고려하였다.

## 길로서의 미술관

여러 형태의 매스는 미술관의 내부 통로를 마치 골목길처럼 분절하여 다른 미술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매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갈래의 길이 입체적으로 교차되어 관람객들의 동선을 다소 생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낯선 길에서 잠시 방향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직하였다.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관람객들은 길을 걸으며 독특하고 유쾌한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길 주변을 따라 풍부하게 유입되는 자연광은 별도의 조명 없이도 관람객들의 보행을 돕고 외부환경을 고스란히 실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길의 중심에는 카페와 라이브러리, 교육실, 휴게 라운지 등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배치하여 공공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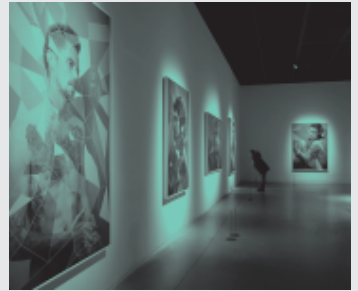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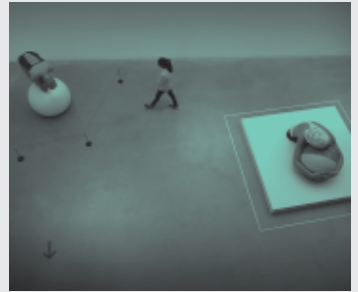
## 지역과 함께 존재하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수원시 최초의 시립미술관이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수원시이지만 미술관 조성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부족하였다. 또한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한 수원화성의 도시 재생을 꾀하고 있는 수원시의 밑그림에 미술관은 수원화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이러한 미술관이 지어지는 데는 시공사이기도 한 현대산업개발의 공이 컸다. 지역사회 공공기여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탄생부터가 지역 속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이다. 지어질 땅, 그 땅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고려한 설계와 아이디어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다.

올 2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하고 4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기사를 봤다. 미술관의 본래 의도대로, 일상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면서 언제든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미술관 건립에 힘을 쏟았던 모두가 뿌듯한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JH  
2016



하이퍼리얼리즘 전시